

예고된 '주 52시간 근무' 준비 안돼 혼란

전남 버스업계 근무형태 협상 난항...감축 운행·파업 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태부족...가용인력 없어 시작도 못할 판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7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예고된 변화'임에도 현장에서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노동자들과 기업·고용주 간 점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스업계 노선 감축 불가피...자차 파업 우려도=19일 고용노동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목포·여수·순천·광양 자동차노조와 버스회사 간 조정회의가 20일 정부광주지방노동청에서 열린다.

이들 4개지역 자동차노조는 최근 사측과의 임금·근무형태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고 20일 조정위원회에서 노사간 임금·근무형태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버스업계 측이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세부 조정 사항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당장, 목포의 경우 버스노조측은 근무형태와 관련, 현재 격일제를 1일 2교대로 바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월급 감소분 보전을 포함한 임금인상안(43.44% 인상·22일 근무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월급 감소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하며 2016년 17억, 2017년 16억 적자를 본 만큼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순천·광양도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임금 3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뿐 아니다. 버스업계 노사가 합의,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목포에 서만 40여명의 버스 기사가 부족해 버스 21대를 감축, 운행해야 해 시민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목포시는 이미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운행 감축(21대) 계획을 마련하고 버스업계 합의안과 연계, 검토중이다.

순천도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20~30명의 버스기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버스 10대 감축에 따른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여수도 부족한 50명의 기사를 매달 수 없어 20대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부족...휴게시간 어떻게 보장하나=어린이집 원장들도 속을 태우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시간 의무 휴식 보장'이 이뤄져야 하지만 대체할 보조교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별도 휴게공간도 없어 실효성 논란 등 혼선이 불가피해사.

전남도도 최근 22개 시·군 3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시범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 가용인력이 부족해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실태조사를 거쳐 어린이집 규모가 큰 곳도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는 "휴게시간 보장은 긍정적이지만 영아반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체인력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복지부가 전남에 350여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전국에 6000명의 보조교사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1241개소의 어린이집이 전남에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들 업계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인력 총원과 인건비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40.11 (-36.13)	↓ 금리(국고채 3년) 2.16 (-0.01)
↓ 코스닥 815.39 (-24.84)	↑ 환율(USD) 1071.64 (+0.44)



한전 안전관리책임자 워크숍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중갑)은 19일 나주 본사강당에서 전국사업소 안전관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사 안전관리책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다양한 안전의식 고취와 함께 김종갑 사장의 환경·보건·안전 경영방침 실천을 결의하고 안전문화의 확산 및 재해예방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가졌다. <한전제공>

지방 초기 창업기업 최대 5천만원 지원

중소벤처부 올 20억원 책정...8월 16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지방 소재 초기창업기업 지원 2018년 프리티프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내 대표 기술창업 플랫폼 '팁스'(TIPS) 프로그램 전 단계에서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올해 예산은 20억원이다.

팁스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 및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방의 경우 창업 인프라가 취약해 그간 팁스 프로그램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 소재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개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분사 소재지가 지방인 기업 중 최근 1년 이내 팁스 운영사 또는 액셀러레이터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이다.

선정될 경우 사업화 자금을 1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팁스 운영사 대상의 투자 기업설명회(IR), 엔젤투자 지원센터 교육 참여 등 연계 지원도 받고,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완료한 기업은 향후 팁스 참여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나 팁스 홈페이지, K-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호남 기반 항공사 '에어필립' 새 하늘길 연다

30일부터 광주-김포 하루 3회 양양·울산 등 전국노선 확대 내년부터 국제선 취항 추진



오는 30일부터 광주-김포, 김포-광주 노선을 하루 각각 3회씩 운항하게 될 '에어필립'의 'ERJ-145기'. <에어필립 제공>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대표이사 엄일석)이 이달 말 첫 운항에 들어간다. 이번 취항으로 광주·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어필립은 오는 30일부터 '광주-김포', '김포-광주' 노선을 취항, 매일 각각 3회씩 운항한다고 19일 밝혔다.

에어필립은 이번 취항을 기점으로 인천·김해·울산·혁신도·울릉·양양 등 국내노선을 차츰 늘려나갈 계획이다. '광주-인천', '무안-인천' 노선 취항을 주력으로 추진해 운항가능 즉시 정기·부정기 노선을 편성, '광주-양양', '광주-김해', '광주-울산' 노선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교통편이 불편했던 영동과 영남 지역을 잇는 하늘 길을 열어 호남지역민들의 교통인프라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박 외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전라도 관광 인프라 조성, 동북아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공노선 취항 의지도 밝혔다.

오는 2021년 개항을 앞둔 흑산공항과 2022년 개항하는 울릉공항 등 소형도서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소형 항공기 'ATR-42', 'E-175'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외관광 수요에 맞춰 국제선 신규노선 취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무안-일본'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오는 2019년 신기종(E-175)을 도입해 중국·대만·홍콩 지역과 필리핀·베트남·괌·블리다노스까지 운항 범위도 넓힐 예정이다.

에어필립은 현재 브라질 '엠브라에르'사 제작, 항공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운송기인 50인승 항공기 'ERJ-1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7월과 8월 2·3호기를 추가로 들여온다. 내년 부터는 현 기종보다 기체가 큰 E-175 기종을 3대 추가로 도입하는 등 매년 2대씩 항공기를 늘려 2022년까지 총 12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광주-김포' 운항요금은 주중 7만~13만원, 주말 9만~13만원으로, 성수기에는 13만원 선이다. 또 첫 취항을 기념해 한달 동안 '동반자 무료항공권' 이벤트를 열고 항공권 1인 구매 시 동반자 1인에 대해 무료항공권을 제공, 모든 탑승객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

엄일석 회장은 "에어필립 정규직 직원의 4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항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민들의 편익과 전라도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달동안 '동반자 무료항공권' 이벤트를 열고 항공권 1인 구매 시 동반자 1인에 대해 무료항공권을 제공, 모든 탑승객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

엄일석 회장은 "에어필립 정규직 직원의 40%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항공 인프라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민들의 편익과 전라도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 누문구역 도시정비 취향양, 시공사에 선정

직장인 연차 평균 9.2일 사용

취향양은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대 10만6481.7㎡에 3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직장인 평균 연차 휴가 사용일수는 9.2일로 조사됐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APP)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719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32%만 자신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다고 답했다. '업무량이 많아 쓰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가 34%로 가장 많았고 눈치가 보여서(30%),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서(22%), 다른 동료들도 쓰지 않는 분위기(14%) 등이라고 답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완벽방수

내구성보장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시공전

2.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시공후

무료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완벽한방수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내구성UP

맞춤디자인

특허공법 디자인방수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 종합특수방수

광주 (062)511-0444

전남 H.P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6년무상 A/S보장 정기점검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 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